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27일 월요일 음 8월 21일 (13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2°C 내외, 낮 최고기온은 26~27°C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Gyeongju,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식중독지수 위험, 자외선지수 보통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for Jeju.

주간예보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 for Jeju.

월드뉴스

16년 독일 총리 '메르켈 시대' 막내린다

유럽 지도자 중 지지를 최고

독일이 26일(현지시간) 연방의원 총선거를 치르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시대가 16년 만에 막을 내린다.



난민과 셀카 찍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독일은 선거제도의 특성상 하나의 정당이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도 연립정부 형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날 총선 결과에 따라 메르켈 총리의 뒤를 누가 이을지가 결정된다.

조달을 성사시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에도 EU의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메르켈 총리는 2005년 독일 역사상 첫 여성, 동독 출신 총리로 선출된 뒤 16년간 재임하다, 자의로 총리직을 내려놓는 첫 총리가 된다.

또한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도 실패한다"면서 최종적인 유럽연합(EU)의 붕괴를 막아냈다.

메르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2011년과 2015년 유럽 부채위기, 2015년 유럽 난민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 때마다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미국을 대신해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별써 메르켈 총리가 그림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때도 메르켈 총리는 EU 내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한라일보 제주 대표신문.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백록담



진선희 부극장 겸 교육문화체육부장

코로나19 발발 초기만 해도 공연장은 꿈쩍없이 문을 닫아야 했다. 실내에 관객들이 몰리면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팬데믹 시대 헤쳐 온 제주 공연장의 또 다른 과제

최후의 통로로 팬데믹 상황의 상실감을 채워주며 예술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설장(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해 약한 제주도문화회관은 작년 뮤지컬 페스티벌에 이어 해는 제주 공연 단체를 대상으로 기획공모를 벌여 9월부터 12월까지 음악, 연극 등 4편을 차례로 무대에 올린다.

1988년(문예회관), 2010년(제주아트센터), 2014년(서귀포예술의전당) 차례로 개관한 이들 공연장은 제주 문화를 상징하는 도심의 '랜드마크'다.

하지만 저마다 뮤지컬, 오페라 공연을 기획하면서 차별화된 콘텐츠, 지역 예술계와 연계한 프로그램 활성화가 과제로 제기된다.

통 문화 등 장르별 안배도 고려해야 한다. 해당 공연이 제주, 서귀포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 과정에 사실상 전속 예술단을 둔 문예회관(도립무용단), 예술단이 입주한 제주아트센터(도립 제주교향악단)와 서귀포예술의전당(도립 서귀포합창단)이 그들과 얼마나 상생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조직과 예산이 그같은 바람을 이루기엔 시대상조라고 하는 이도 있겠지만 마냥 때를 기다릴 순 없다. 이미 30년 넘게 꾸려온 공연장이 있는 현실에서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열린마당

자전거와 안전벨트 속 성차별?



장한걸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자전거로도 성차별을 당할 수 있을까? 서울시 한 구에서 진행된 자전거 대여 사업의 예를 들어보자. 구내 곳곳에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했으나 대여 건수가 예상만큼 늘지 않았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상희 제주시 도무동주민센터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제도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후 확인서 발급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많은 발생해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써,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자기성명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위임자란에 성명, 주소를 기재하면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도무동에서는 매주 목요일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의 날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각 자생단체회 및 민원인 대상으로 방문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후 체험 발급을 하고 있다.

인감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이기는 하나 그간 빛을 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안전한 편리성으로 인해 최근 수요기관이 증가하면서 발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용해 보면 간소한 절차로 인감과 차별성 및 편리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Product advertisement for hanging baskets.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Advertisement for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Advertisement for IT services.

국제보청기프라자. Advertisement for hearing aids.